

교회 13곳, 성당 2곳, 전체 인구 중 90% 가량이 기독교 신자인 곳. 군 법당 축복사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주지 지명)가 건립된다.

남한 최 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천연기념물인 사곶 천연비행장(391호), 콩돌 해안(392호), 감람암포획 현무암(393호) 등 자연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곳으로 특히 효녀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인당수'가 있는 곳이다.

효녀 심청의 얼·남북 화해 일깨워
1천일 기도입재...개신교 반대 거세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건립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법당 대지 184평 등 전체 14,420평. 여기에 내년 초파일 10m 높이의 해수관음상 봉안을 시작으로 법당과 수련원, 연지(蓮池) 등을 조성한다.

이 곳에 도량 건립을 위해 주지스님의 도반인 상범 스님은 기도법사를 자청, 15일 1000일 관음기도에 들어갔다. 회향일은 2005년 8월 10일.

연화정사 효행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효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승시키기 위해 건립된다.



▷백령도연화정사건립기원 1천일기도에 입재한 스님과 불자들.

내년 초파일 해수관음상 봉안, 법당·연지 조성

또 수련원이 완공되면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화정사 주지 지명스님이 백령도에 사찰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은 5년 전. 인천 농인사 주지 소임을 맡던 중 백령도를 들르면서 시작됐다. 심청전 설화가 나오는 사지(史地)가 있고, 절골이라는 지명도 있었으나, 사지가 수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스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사찰건립반대의 움직임을 희석화시킬 계획이다.

지명스님은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시대에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가 건립되면 분단 민족이 하나됨을 절감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문의 032-885-9711

백령도=남동우 기자

간다라유적 발굴조사 길 열려

아프간, 불교문화재 복원등 한국협조 요청

불교미술의 본산지인 아프간 간다라 불교유적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간 불교문화재 복원과 유적 발굴조사에 한국이 참여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라한 아프간 문화재정보 장관이 박종순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에게 요청한 내용은 △수도 카불 시 인근

불교 문화재 복원 비용 10만 달러(한화 약 1억2천만 원) 지원 △현지 유적 발굴 조사 참여 △전문가 파견 현지 인력 양성 등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우리 학계가 이미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몽골과 러시아 아무르강 선사유적 발굴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예산이나 인력, 현지 사전 조사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무의탁노인 3백명 초대 밀양 용궁사, 17일

무의탁 노인 300여명을 초청, 흥겨운 한마당 놀이가 펼쳐진 17일의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 도량에는 가을 햇살이 뜨거웠다.

사보 <초심> 창간 2주년을 기념하며 가진 이웃을 위한 한마당 공연에는 밀양 인근의 외로운 노인들이 초청되어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이상조 밀양시장, 전 통도사 총무국장 중선스님을 비롯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요식에서 이어 양산보광교 대대부의 연주와 흥제중학교 사물놀이, 불교사명어린이집 재롱잔치, 경기민요보존회 경복지희의 민요, 백야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아도화상 좌상 제막식

구미 도리사, 법회 봉행

구미 도리사(주지 법담)는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의 동상 제막식을 17일 봉행했다.

도리사 경내 옛 반야정사 자리에 건립된 아도화상 동상은 2m 25cm 높이의 좌상으로 불자들의 성금 모금 및 정부 지원금 등으로 세워졌다. 녹월스님은 법문에서 "아도스님의 성상 봉안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 불법 전파의 원력을 세운 아도스님

처럼 남을 위해 원력과 신심을 발휘하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육법공양, 종사영반, 법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직지사 회주 녹월스님, 경성북도 영이웅 정무부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박원구 기자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 좌상.

무보시 49천도재 회향

대한불교법연원 19일

대한불교 법연원은 19일 부산 시작체육관에서 제6회 국운충창, 평화통일기원 무보시 49천도대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10월 2일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입재 법회를 가진 무보시 49 천도대 회향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대각사 주지 홍교스님, 김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스님들과 정

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전국에서 참석한 1만여 불자들이 사직체육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식전행사인 불교텔레비전 열불공양모임의 열불공양으로 시작했다. 천미희 기자

30일간 화엄산림법회 12월4~11월2일

통도사, 대덕스님 초청 화엄경 법문

불보살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판)는 12월 4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30일 동안 대덕 스님들이 설하는 화엄경 법문으로 화장암영세계를 펼쳐 보인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30년 전통을 이어오며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법석. 12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의 입재 법문으로 시작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30일 동안 30분의 제법 대덕스님이 초빙돼 영남은 물론 전국의 불자들에게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설하게 된다.

지안스님, 무비스님, 통광스님, 덕민스님, 자광스님, 종범스님 등의 법사스님에 의해 세주모염품, 여래현상품, 십회화품, 보현행원품, 아승지품, 입법계품 등의 설하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선망부모와 일체 영가 천도를 위한 천도재도 봉행된다.

통도사 주지 현판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해서 지혜의 복덕을 두루 갖춘 불제자로 거듭나는 법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회원들이 연천 호국범우사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영들을 위해 주방에서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범우사 장병 500명 수계

1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호국범우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우사는 오전부터 여수선하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장병 500여명 수계식 때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나고 한 무리의 '아줌마 부대'가 등장했다.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변복희, 신남선, 박경선, 민춘자, 김봉자, 김점희 회원, 스님과 반가는 인사를 나누고 팔을 걸어주는 모습이 자기 집 주방일 하듯 익숙해 보인다.

회원들은 먼저 오늘 수계식 때 장병들에게 나눠줄 햄버거와 음료수, 과일이 든 봉지를 쥘다. '날씨가 찬데 햄버거가 딱딱하지는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던 사병이 법당에 드나들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된다는 회원들. 적박한 군 포교 현실이지만 이들이 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다. 011-9755-0912

연천=남동우 기자



▷원효불학원 현판식이 18일 경주 복원사에서 개최됐다.

원효종 최초 승가대학 '원효불학원'

경주 복원사 18일 현판식 개최

원효종 최초의 승가대학 '원효불학원'이 내년 3월 정식 개원한다.

경주 복원사(주지 영논)는 18일 경내에서 원효불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원효불학원은 원효종의 전문 승려양성교육기관으로 초발심자경문, 불교학, 율학, 기신론, 원효화 등을 개설한다.

원효종 종정 범흥 스님은 법어에서

불법인연감사...절터보시

삼척 조개사 박복녀·손봉례 보살

"외진 곳이라 절이 없어 불법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해타스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 조금 갖고 있는 땅을 사찰부지로 보시했습니다."

창건 3년째인 삼척 조개사의 큰 보살·작은 보살로 불리는 박복녀(70 일신화), 손봉례(64·연화심) 보살, 조개사 아랫마을에서 한 집 건너 살고 있는 두 보살은 다른 신도의 모범이 되는 불자들이다. 이 곳에서 시집은 이후 친자매처럼 지내는 두 보살은 남다른 우애와 보시행으로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큰 보살과 작은 보살을 '큰보'라고 부른다. 큰보살이안보살이 작은 보살 집으로 가고 작은 보살이 없으면 큰 보살 집으로 찾아간다. 40년을 누구보다 아끼며 살아온 두 보살의 별명 '큰보' 속에 담긴 사랑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보살로 불리는 손봉례 보살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 남편 손에 이끌려 충북 영동에서 시집 온 손 보살. 2명의 시누이가 모두 몸

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뿐더러 대 소변도 받아내야 할 심각한 장애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 보살에게 도망가라고, 그 집에서는 못 산다고 충고를 했었다. 하지만 단 한사람, 박보살만은 그를 달랬다. 손 보살은 그런 큰 보살을 언니처럼 의지하며 떠났다.

손 보살이 장애인 아이를 입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들 미쳤다고 했



▷박복녀(왼쪽 첫번째)·손봉례(왼쪽 두번째) 보살이 신도들과 장독을 옮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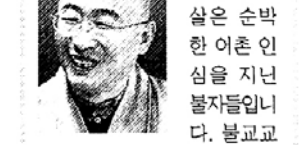
일 기도합니다. 장애인 아들들 둔 엄마의 슬직한 심경입니다."

이런 작은 보살을 친언니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이가 박복녀 보살이다. 박 보살은 조개사 불사중에는 매일 절에 올라와 인부들 공양을 지어주고 손 시멘트와 모래를 등에 저 날랐다. 손 보살이 황토로 벽을 바르면 박 보살은 황토를 등에 얹어 옮겨 가져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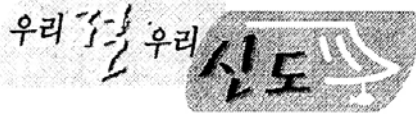
박 보살은 절 아래 밭을 일구며 채소를 길러 조개사에 오는 불자들에게 나눠주는 고운 마음씨를 지녔다. 가진 재산이 없어 많이 못 내놓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

추천의말

해타스님 조개사 주지



박복녀 손봉례 보살은 손박한 이혼인심을 지닌 불자들입니다. 불교리는 잘 모르지만 착한 일만 하는 두 보살은 이 시대 진정한 보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시누이를 시집 은 이후 돌보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아이를 입양해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누가 보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을 지을 때는 시멘트와 목재, 벽돌을 직접 날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보살은 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니다. 두 보살의 보시행은 모든 불자들이 배워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어려움 함께 나누는 삶 살고 싶어

다. 하지만 손 보살은 그런 아이를 업고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소록도까지 14번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 고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며 긴 한숨을 내쉬는 손 보살. 주름진 이마와 손등에서 고생을 담고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나타났다. 얼마 전 그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봤다.

"몸이 불편한 아들녀석 장가는 게 모습을 보고싶다고 부처님 앞에 매

조개사 주지 해타스님은 법회 때마다 불자의 삶은 두 보살 같아야 한다고 법문을 한다. 두 보살은 스님의 칭찬을 채찍으로 삼는다. 삼척=박봉명 기자